

순천, 여름철 건강·안전 보호 총력

폭염·호우·감염병 등 대응 맞춤형 돌봄체계 가동 어르신 쉼터·순회진료...아동·청소년 프로그램도

순천시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계절성 감염병 등 복합적인 건강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안전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순천시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감염병 예방과 식품위생 관리, 아동·청소년 건강 지원 등 전방위적인 보건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 건강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는 독거노인, 재가암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약 5600가구를 대상으로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폭염에 따른 이상 증세 확인과 건강상담, 안부 전화 등을 실시하며, 일상에서 제감할 수 있는 돌봄을 실현 중이다.

또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의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보호체계도 강화됐다.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진료소 22개소를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운영, 고령층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보건지소·진료소에서 는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폭염 대응 요

령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진료소에서는 ‘우리동네 건강총진소’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여름철 건강교육을 통합 제공, 주민 건강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계절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침수 지역과 위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강화하고, 어패류 취급업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수계 검사를 통해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식중독 사고 예방과 친절 서비스 확산을 위한 식품위생 종합대책도 시행 중이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113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교육을 통해 위생 습관 형성과 식생활 지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중독 고위험 업소 150곳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예방 진단 컨설팅도 병행해 업소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여름철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마련,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꿈나무 건강키움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성장검사와 생활습관 교육, 건강상담, 필수 예방접종 확인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름철은 다양한 건강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건강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장동진 작 '계곡의 봄 50호'

곡성 수목화 연구모임 ‘묵향림’ 갤러리 107서 한국화 단체전

곡성군은 수목화 연구모임인 ‘묵향림’이 갤러리 107과 스트리트 갤러리 4동에 서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단체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5번째 전시를 개최하는 ‘묵향림’은 곡성 지역 수목화를 연구하는 작가들의 모임으로 심현 오복동 작가의 지도로 전국의 유명 공모전 출품과 매년 정기전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오복동 작가와 강동민, 권희표, 김기술, 김은중, 김인숙, 김정애, 김준, 박정애, 선재순, 안복자, 안성화, 오태인, 이명희, 장동권, 정찬향, 조미경, 한정길, 황귀옥 회원 등 19명의 작가가 참여해 32점의 수묵담채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동권 묵향림 회장은 “각자 작업에 정진하며 발전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긍심을 느끼고 곡성 지역에 우리의 전통예술인 한국화를 홍보하고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묵향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갤러리 107은 곡성군 중앙로 107-1에 소재하며, 전시 기간에는 휴관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작품 감상이 가능하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여수’ 2500여명 다녀가

웅천 천수공원·장도서 야간 공연 관람객 호응 영화관람·야경도 인기

여수시는 최근 웅천 천수공원과 예술의 섬 장도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여수’가 2500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여수시가 공동 주최했으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웅천 일원에서 다양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광복절 연휴에 여수를 찾은 방문객과 시민의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장도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캔들라이트 콘서트는 플라멩코 공연과 팝페라 테너 임형주의 무대가 장도의 야경과 어우러지며 색다른 야간 공연으로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웅천 천수공원에서는 여수시의 신규 야간관광 특화 프로그램인 ‘동백 무비 나이트’가 처음 운영돼 영화 ‘별남은 간다’가 상영됐다. 관람객은 헤드셋으로 주변 소음 없이 영화를 감상했다.

웅천 해변 일대에는 약 1만개의 캔들을 설치해 야간 경관을 연출했으며, 전국 10개 도시의 디지털 부스와 여수 특화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고 파라솔과 테이블을 비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김상욱 여수시 관광과장은 “밤바다가 아름다운 여수에서 다양한 야간 관광콘텐



2025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여수. ‘를 찾은 이들이 야외 공연을 즐기고 있다.

츠를 선보일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K-야간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에 선정됐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구례군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와 '지역사랑 철도여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값 기차 타고 구례로 여행오세요”

군-한국철도공사, 지역사랑 철도여행 협약 체결

구례군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와 ‘지역사랑 철도여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출시한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통해, 구례를 포함한 지역 방문객들에게 최대 50%까지 철도운임을 할인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례군은 이에 발맞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여행객들에게 관광지 및 체험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남도 숙박 할인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은 지역과 철도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모델로, 관광객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구례군

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협약은 교통부터 숙박, 체험까지 연계된 원스톱 관광서비스 제공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례구역의 역사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 주차장 확대 등을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했으며, 향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장흥,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 ‘호평’

생활비·의료비·학원비 등 맞춤형 지원

장흥군이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와 손잡고 추진 중인 ‘Fill Care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Fill Care’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학업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맞춤형 통합복지사업이다. 지원은 생계·돌봄·미래 준비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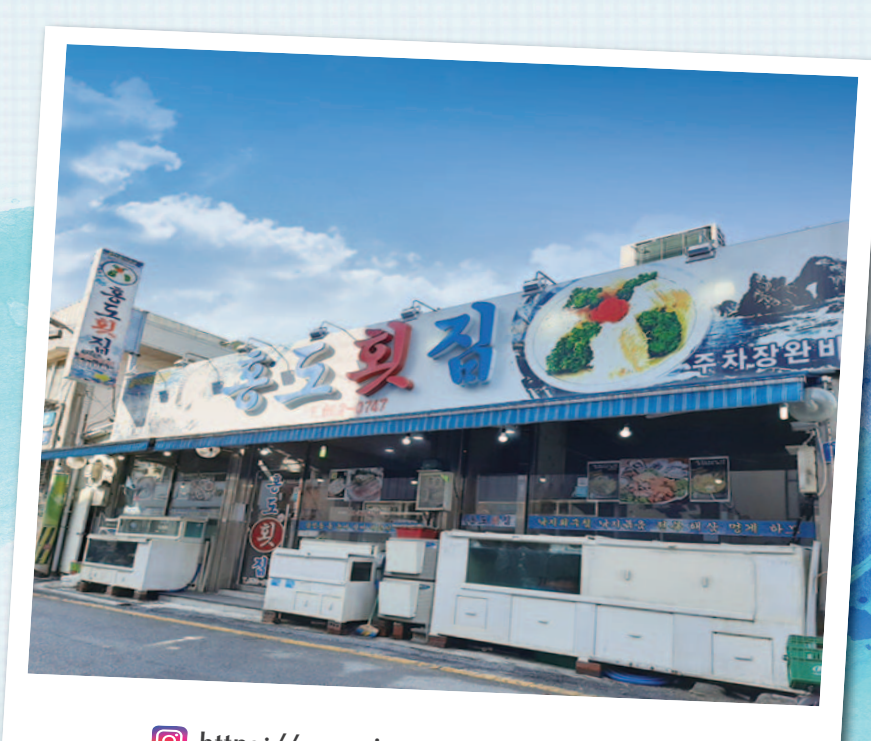
군은 지난 5월 월드비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는 청소년 6명, 청년 7명 등 총 13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인당 200만원씩 총 2600만원이 생활비, 의료비, 학원비, 자격증 준비 등 가정의 필요에 맞게 전달됐다. 또한 태블릿PC 등 미래 준비를 위한 물품도 함께 제공됐다.

올해 사업의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대상자들의 일상과 정서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생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그동안 자신을 돌봄 여유조차 없었던 청소년, 청년들이 비로소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회복하고,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김성 군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온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 ‘이제는 혼자자 아니다’라는 희망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드비전과 협력해 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https://www.instagram.com/hongdorestaurant/

싱싱함이 살아있는 맛—

홍도횃집





갈비 / 장동 유비끼 / 전골

홍도횃집

유비끼 전문

참돔 / 감성돔 / 농어 / 광어 / 새꼬시

광주 남구 봉선로 19번길 3 | 062-652-0747



위치: 전남 남구 봉선로 19번길 3 (국립중앙도서관 인근)

주요 메뉴: 유비끼, 갈비, 전골, 참돔, 감성돔, 농어, 광어, 새꼬시